

인쇄업계 세무회계 애로사항은 우리가 ^^

경영상태 파악해 해결방안 제시

인쇄인들 대부분은 경영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지만 세무나 회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거나와 신경도 잘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간단한 경리업무는 회사 내에서 처리하지만 세무관계는 역시 세무사를 활용한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데는 역

시 회계자료가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데 회계에 밝은 인쇄인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신경 쓸 시간 있으면 차라리 영업에 투자하겠다는 식이다.

아쉽게도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회계문제가 회사의 경영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거꾸로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초석이 되기도 한다. 특히 시설을 중요시하는 인쇄업에서는 10억원 이상

이나 하는 인쇄기 등을 도입할 때의 자금계획 등이 감으로서만 이루어지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곳이 있다. 바로 한결세무회계경영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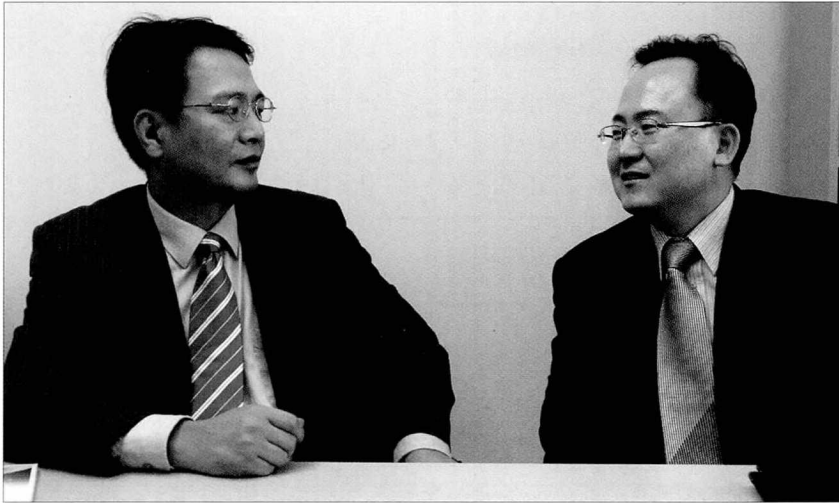
세무회계는 기본, 컨설팅은 보너스

“기본 업무는 세무회계 처리이지만, 인쇄업계를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면서 인쇄인들이 느끼는 경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 줄 예정입니다”

한결세무회계경영컨설팅은 상호에서 나타나듯이 세무회계 업무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인쇄업계를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면서 세무회계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무회계 업무는 그 회사의 속사정까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컨설팅의 진단·평가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수월하다.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 방안도 있고, 아니면 문제를 최소화할

곽규백(좌)·권택기 공동대표가 화이팅을 하고 있다.





잠자는 시간만 빼고는 거의 함께 활동하는 두 사람은 이제는 눈빛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라 한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 오랜 시간을 같이 지냈기 때문에 손발이 척척 맞는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림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는 두 사람은 인쇄업계에 그 선물보따리를 풀어놓으려는 것이다.

수도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한결세무회계경영컨설팅이 해 준다는 것이다.

혹자는 세무회계 회사에서 어떻게 경영컨설팅을 할 수 있을까 의아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박규백·권택기 공동대표의 이력을 알게 된다면 그 능력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게 될 것이다.

박규백 대표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기아자동차, 안진회계법인, 아더앤더슨/딜로이트 투슈 등에서 근무한 바 있는 공인회계사·세무사로서 기업진단, 회계감사, 세금 신고업무 등을 맡고 있다. 권택기 대표는 서울대 철학과를 나와 고려아연 전략기획팀, 호주의 Sun Metals, 벤처기업 CFO로 근무한 바 있는 수석 컨설턴트로 M&A, 투자유치, 사업계획수립, 대정부 인허가 업무 지원 등을 맡고 있다.

내실있는 경영 위해 전문 회계인 필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30여개의 인쇄사들을 방문하면서 인쇄업계에도 전문 세무회계 회사가 필요하다고 느껴

어렵겠지만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

이들이 인쇄업계를 전문분야로 선택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그것은 고등학교 동창인 김동군 고모리 주재원이 인쇄업계의 세무회계를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보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2003년 7월 설립한 한결세무회계경영컨설팅은 다양한 회사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해 왔다. 풍부한 경험을 살려 컨설팅 업무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고향 친구이자 고등학교 동창인 김동군 주재원이 인쇄사를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세무회계 회사가 있으면,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인쇄기 구입 시 자주 이용하는 리스에 대해서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해 주었다.

거기에는 최근 업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도산하는 인쇄사가 있는데 이들 회사의 정리 및 인수·합병도 도울 수 있다고 말해 준 것이다.

세무회계의 중요성은 기장뿐만이 아니라 투자계획, 특히 인쇄사의 경우 인쇄기 도입 시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하고 비싼 리스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결세무회계경영컨설팅과 같은 세무회계 회사의 서비스를 받는다면 제대로 된 리스료를 산출할 수 있고, 계약상의 문제 해결,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해 도입 시기를 맞춘다든가, 아니면 얼마만큼의 이익과 손실을 보게 되는 지도 미리 검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결세무회계경영컨설팅의 업무는 이밖에도 각종 세무 및 회계 관련 업무, 사업계획 수립, 투자유치, 대정부 인허가 업무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업무적이기 보다 인간적으로 접근할 터

“동업자이기 전에 친구이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불신 없이 일하고 있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다”

잠자는 시간만 빼고는 거의 함께 활동하는 두 사람은 이제는 눈빛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라 한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 오랜 시간을 같이 지냈기 때문에 손발이 척척 맞는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림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는 두 사람은 인쇄업계에 그 선물보따리를 풀어놓으려는 것이다.

다양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두 사람은 인쇄인들의 좋은 동반자로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업무적이기 보다는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다. 이 두 사람의 인쇄업계 참여는 마구잡이식 투자를 막고, 감으로 하는 경영을 개선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인쇄업계는 믿음직한 관리인, 합리적인 조언자를 두게 된 셈이 되었다.

〈윤재호 부장〉